



엔퓨텍 자외선 살균기 '퓨라이트'

"10초면 집먼지진드기 싹 ... 친환경·低위험 살균기"

이화용 엔퓨텍 대표가 자외선 살균기를 대량 생산한 시기는 2001년이었다. '9·11 테러' 직후 미국에서 탄저균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였다. 미국의 한 바이어가 개발을 의뢰한 게 계기였다. 첫 주문량만 16만여개에 달했다. 갖 잡업한 이 대표는 '기회다' 싶었다. 곧바로 제품 생산에 나섰다. 하지만 이것이 실수였다. 탄저균 공포가 급세 사그라지자 바이어는 주문을 돌연 취소했다.

◆침구 소독용으로 흡소핑 '대박'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참고에 쌓인 자외선 살균기를 들고 TV흡소핑으로 달려갔다. "침대 매트리스 살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흡소핑 상품기획자(MD)들을 설득했다. 첫 방송부터 수천개가 팔려 나가며 '대박'이 나왔다.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에 선정된 엔퓨텍의 자외선 살균기 '퓨라이트' 얘기다.

방망이 모양의 퓨라이트는 자외선 램프의 빛으로 세균과 바이러스, 집먼지진드기 등을 없앤다. 침구 살균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매트리스, 이불 등 침구에 10초 이상 빛을 비추면 집먼지진드기 대부분이

죽는다"고 이대표는 설명했다. 효능을 여러 기관을 통해 검증했다. 산업기술시험원 생활용품 시험연구원 등에서 '10~20초간 사용하면 99.9% 살균 효과가 있다'는 시험 결과를 받았다. 미국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의 연구 기관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대한아토피학회 공식 추천 제품에도 선정됐다.

"살균력 99.9% 인증" 美 호텔에 1만5000개 수출 자동차 살균기로 사업 확대

일반 가정뿐 아니라 호텔이나 청소 전문업체에서도 퓨라이트를 많이 찾는다. 이 대표는 "미국 호텔 체인 베스트웨스턴이 퓨라이트 1만5000여개를 세계 각국의 호텔에서 객실 청소 때 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또 다른 미국 호텔 체인에서도 3180여개를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퓨라이트의 활용 범위는 넓다. 칼과 도마 등 주방용품을 살균하



이화용 엔퓨텍 대표가 자외선 살균기 퓨라이트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안재광 기자

나 칫솔, 세면대, 변기, 컴퓨터 키보드 등 세균과 바이러스 번식이 잦은 곳엔 어디든 사용할 수 있다. '광촉매제'에 자외선이 통과하면 살균은 물론 유해가스를 제거하고 탈취 기능까지 하기 때문이다.

◆"구제역 때 후 살균에 사용" 이 대표가 요즘 가장 공을 들이는 곳은 축산 분야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하면 피해가 큰 돼지와 오리 등의 가축을 기르

는 축사가 대상이다. 관공서나 대형 축사에서 쓰는 자동차용 소독기를 자외선 살균기로 대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자동 세차기처럼 자동차가 들어가 30초가량 자외선 램프를 쬐면 살균이 되는 방식이다.

기존 소독약을 뿌리는 방식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유지 관리비가 추가로 들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다. 자외선 살균 방식에 익숙지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 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아이젠-국내 의료기기 인증 광장 비데 (02)581-1067 △브링유-7초 원터치 안전 삼각대 PULLi (031)506-8689 △지비솔루션즈-수유등 루나스퀘어2 (02)717-9901 △엔퓨텍-자외선 살균기 퓨라이트 (031)744-4549

않은 공무원과 농가를 상대로 이 대표가 직접 현장을 돌며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성과도 적지 않았다. 그는 "정부가 전국 52곳을 거점 지역으로 정하고 상시 소독기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5곳에 제품을 넣기로 했다"며 "아직 입찰이 나오지 않은 곳을 집중 공략 중"이라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hankyung.com

SW 융합 소재부품 지원으로 3년간 수출 2.6배 '날개'

반도체 직접회로 개발업체인 티엘아이의 스마트폰 핵심 저장장치인 유니버설플래시스토리지(UFS) 메모리를 개발했다. UFS는 차세대 외장 메모리 카드다. 낸드플래시 메모리에 제어장치를 결합한 형태로 읽기·쓰기가 동시에 이뤄진다. 기존 저장장치(마이크로 SD 카드)보다 읽기 속도는 4배 이상, 쓰기는 2배가량 빠르다.

티엘아이는 연내 128·256GB 고 사양·대용량 제품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티엘아이의 UFS 메모리 개발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 신뢰성 기술확산 사업'(소프트웨어 융합형 20대 부품)이 뒷받침됐다. 개발사업에 뽑혀 3년간 총 25억70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한양대 성균관대 이예프텍 씨알지테크놀로지 바른전자 등이 개발에 참여했다. 앞으로 3년간 전체 참여기관의 관련 투자금액은 5300억원, 총 고용창출 인원은 747명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소재부품 신뢰성 기술확산사업에 선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사업에 선정된 124개 업체의 매출은 2.1

배(7800억원→1조6700억원), 수출은 2.6배(3531억원→9094억원), 평균 거래처 수는 1.5배(9.6개→14.7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이전	이후
매출	7800억원	1조6700억원
수출	3531억원	9094억원
업체당 평균 거래처	9.6개	14.7개
기술수준	70%	85.9%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중견기업에 300억 투자

지나해부터는 차세대 핵심 부품 연구개발을 위한 중소·중견기업을 따로 선정, 총 300억원을 지원했다. 진동거울 전문업체인 센플러스도 이 사업에 선정돼 '3D HD급 영상

을 위한 스마트 피코 프로젝터 부품 및 엔진' 개발을 하고 있다. 모바일 기기 등에 내장할 초소형 레이저 프로젝터와 관련 소프트웨어다. 문신학 산업부 소재부품정책과장은 "소프트웨어 융합형 20대 부품은 2018년까지 2조원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하기자 minari@hankyung.com

대한민국 태양광발전 1등 기업 www.kwpower.co.kr

인정과 신뢰의 100년 기업

**태양광
토지매입**

안정적 노후연금
월 250만원
99KW 설치기준

연구발전소

신기후 체제에 따른 유망사업
화석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로의 대전환

태양광발전소분양

- ◆경북 의성군 2차 99KW 8기 (잔여분)
- ◆충북 제천시 1차 99KW 3기 (잔여분)
- ◆충북 제천시 2차 99KW 15기
- ◆충남 홍성군 99KW 8기

사업설명회 개최안내

일시: 2016년 9월 28일 수요일 PM2시
장소: 제천 서울관광호텔 6층 로즈홀
주소: 충북 제천시 명동 5-12번지
◆◆◆ 예약접수 선착순 50명 ◆◆◆

**빛나는 투자! 21세기 노후연금!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 개인이나 법인 누구나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 한전에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

안정성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한국전력과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보장

수익성 예상 수익률 10% 이상, 토지 지가 상승에 따른 시차이익(토지분할등기이전 25년 모듈 효율보장 (30년 운영))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협회(제 대우-00973호)

상시 방문 상담 가능
1644-4192
010-5110-5660

대우시 수성구 화랑로 164(만촌동 1331-8)

재도전 기업인에 '마중물'된 再起지원보증

기술보증기금 579억 투입
4년 간 432개 업체 혜택

올산에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는 정호순 탐아인앤디 대표는 작년 9월 이전까지 지인 명의로 회사를 운영했다. 2011년 부도를 낸 탓이었다. 재기에 나섰지만 '실패한 기업인'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다. 그는 대표 자리를 내주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정 대표가 자신의 이름을 대표직함에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 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덕분이었다. 기보는 4억2500만원의 신규 보증을 통해 정 대표의 신용을 회복시켰다. 1억7000만원의 추가 자금도 지원해줬다. 그는 "지난해 144억원의 매출을 거뒀고 이익도 내는 정상 기업이 됐다"며 "채무는 장기 분할로 갚고 있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보가 운영 중인 재기지원보

늘어나고 있는 재기지원보증액 (단위:억 원)

연도	업체수	금액
2012년	63	111
2013	73	77
2014	92	116
2015	130	176

자료:기술보증기금

중이 재도전 기업인들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2년 이후 올 8월 말까지 432개 업체에 579억원(누적 기준)이 투입됐다. 매년 지정 대표의 신용을 회복시켰다. 1억7000만원의 추가 자금도 지원해줬다. 그는 "지난해 144억원의 매출을 거뒀고 이익도 내는 정상 기업이 됐다"며 "채무는 장기 분할로 갚고 있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기보가 과거 보증을 선 기업 중 은행 채무를 갚지 못한 곳이 대상이다. 회계·법률·기술 관련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

사위원회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기술력이 일정 수준(기술사업 평가 B등급) 이상이면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심의에 통과하면 연체 등으로 높은 이자를 물고 있는 '악성 채무'를 '정상 채무'로 돌려준다. 회생에 필요한 신규 자금도 지원해 준다. 채납된 세금을 정리하는 절차도 거친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재창업 재기지원보증'도 있다. 기보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에서 못 갚은 채무가 있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재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 기업이 대상이다. 보증 한도는 최대 3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이다.

기보 관계자는 "기술력과 사업 재개 의지가 있지만 기존 채무 탓에 재기가 힘든 성실 실패자를 돕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며 "올해만 140개 기업에 재기지원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hankyung.com

경동나비엔, 中 베이징에 보일러 공장 건설

2020년까지 年 50만대 생산

경동나비엔의 중국법인인 베이징 경동나비엔이 새 공장을 건설하고 현지 보일러 및 운수기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섰다.

경동나비엔은 베이징 신공장 건설을 위한 착공식을 하고 공사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어지는 공장은 약 4만8000㎡에 자리 잡고 있다. 1 단계로 2017년에는 약 13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연간 30만대 생산

시설을 갖춘 예정이다. 2020년까지 연간 50만대의 보일러 및 운수기 생산능력을 구축한다. 경동나비엔은 단일 보일러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인 연 200만대 생산능력을 갖춘 경기 평택시 서탄공장을 가동 중이다. 베이징 공장이 지어지면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새로운 교두보까지 마련된다.

베이징 신공장은 자동화공장인 서탄공장 건설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어진다. 높은 생산성과 체계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갖

췌 "글로벌 전진기지"로 자리잡는다. 자동화 생산시스템은 물론 지능형 참고와 논스톱 물류시스템을 완성하고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한다. 경동나비엔은 1993년 업계 최초로 중국 시장에 진출해 시장점유율 1위에 오르는 등 '난방 한류'를 주도하고 있다. 김용범 베이징 경동나비엔 사장은 "경동의 콘텐츠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에서도 성공 신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낙훈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2016 국제 접착·코팅 콘퍼런스

- 모심나다 -

선이 열립니다.

●일시: 10월5일(수)~6일(목) ●장소: 인천 송도컨벤시아 ●참가비: 25만원(1일), 35만원(2일)(30일 이전 신청 시 18만원, 30만원) ●참가신청: 홈페이지(<http://www.iacc.or.kr>) 온라인 등록 ●문의: 포럼사무국 (031)913-8077

‘2016 국제 접착·코팅 콘퍼런스(IACC)’가 10월 5~6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접착·코팅협회 등이 선

보이는 기술 콘퍼런스입니다. 의료·바이오, 자동차 경량소재, 디스플레이, 전지 등 다양한 제조분야에 필요한 접착·코팅 분야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50여개의 전문 세

주최:한국접착·코팅협회 오에스엠 한국경제신문